

『燃藜室記述』의 濟州記事*

고 정 윤**

II

이 약 동(李約東)

이약동(李約東)은, 자는 춘보(春甫)이며, 노촌(老村)이요, 본관은 벽진(碧珍)이고, 현령(縣令) 덕손(德孫)의 아들이다. 문종 신미년에 문과에 올라 이조참판을 지내고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평정공(平靖公)이다. 청백리(清白吏)에 녹(錄)한 바 되었다. 계축년에 죽었는데 나이가 78세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너그럽고 후하여 마음가짐이 견고(堅固)하여 부화(浮華)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살림살이는 돌보지 아니하였다. 성품이 강(剛)하고 정직하여 구구히 남에게 청탁하지 않았다. 평생에 청백하고 조심하여 자손들을 훈계할 적에는 반드시, “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하였다. 김종직(金宗直)과 고향이 같으므로 잘 지내었다. 만년에는 금산(金山) 하로촌(賀老村)에 물러와 살았는데, 이것[노촌]으로서 자기의 호를 삼았다. 금산(金山)에 사당(祠堂)을 세워 전필재와 함께 제향하였다.

공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사냥할 적에는 채찍 하나를 가졌었는데, 임기(任期)가 차서 돌아올 제 그 채찍을 벽 위에 걸어 두었었다. 후에 섬 사람들이 보배처럼 감수하여 매양 목사가 도임하면 채찍을 내어 놓았다. 세월이 오래 되며 좀이 먹어 부서지니 화공(畫工)을 시켜 그 채찍의 형상을 그려 걸어 놓았다.

제주에서 돌아올 때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갑자기 빙빙 돌면서 가지 않았다. 사공들은 모두 겁을 내어 얼굴빛이 변했으나 공은 움직이지 않고 바로 앉아 있었다. 비장(裨將) 한 사람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섬 백성이 공의 밝은 덕을 감사하여 금으로 만든 갑옷 한 벌을 가지고서 <훗날> 공께서 갑옷 입으실 날에 드리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이 즉

* 이 글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한 『국역 연려실기술』의 제주 관계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II, V...는 국역본 권수를, 본문 말미의 page는 국역본 면수를 의미한다.

** 영남대학교 국악과 강사

시 <금으로 만든 갑옷을> 바다 속에 던지게 하였더니 무사히 건너왔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 곳을 가리켜 「투갑연」(投甲淵)이라 하였다. (pp.73:9-74:4)

한충(韓忠)을 죽이고 김정(金淨)·기준(奇遵)을 사사(賜死)하다

○처음에 김정(金淨)이 그의 배소(配所)인 금산(錦山)으로 가니, 그의 모친이 있는 보은(報恩)과의 거리는 하룻길인데 그의 모친은 상심한 나머지 병이 되어 점점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식을 들은 정은 곧 달려 가서 보려고 혹은 군수에게 청해서 허락을 받고 갔다고 쓰여 있다. 그의 조카 천부(天富)로 하여금 머물러 집을 지키게 하고, 수직하는 자를 시켜 군수 정웅(鄭熊)에게 그 다음날 돌아올 뜻을 고했다. 웅은 답서와 함께 병환 중에 있는 모친께 드리라고 감자(柑子)와 꿩·술들을 보내어 왔다. 그런데, 마침 배소를 진도(珍島)로 옮기라는 명이 있어 금부도사 황세헌(黃世憲)이 압송하려고 왔다. 이에 정은 부랴 부랴 돌아와서 즉시 새로 지정된 배소로 갔는데, 경진년에 이르러 집권한 간신들이 김정이 망명했다는 이유로 잡아다 국문했다. 정은 <그 당시의 군수였던> 정웅을 증인으로 말했다. 정웅은, “그는 사실 도주한 것으로서 나는 전혀 몰랐었고, 감자·꿩·술들을 주었다는 것도 꾸며낸 말이다”고 증언하였으니, 이는 웅이 일시 죄수를 놓아 주었다는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도망해 간 것을 잡아 온 것으로 말하여 사군자(士君子)를 사형에 빠뜨리는 것도 돌아보지 않은 것이었다. 정은 세 차례의 형을 받고 옷을 찢어 상소했다. 특히 사형에서 감하여 제주(濟州)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다. 『기묘록』·『패관삼기』.

○상소에 말하기를, “요전에 중죄를 져사오나, 은혜를 입사와 배소로 간 것이어늘, 어머니는 자식의 악한 것을 모르고 지나치게 근심하고 상심한 끝에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아, 드디어 큰 병을 이루고 자리에 누운 채 위독한 상태에 빠져 생명이 실날 같았습니다. 이 급보를 받고 오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다만 생각이 들기를, 조정에 잘못하여 모친에게 걱정을 끼쳐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는데, 만약 한번 대면하여 마지막 이별마저 못한다면 인간과 지하(地下)에 그 원통함이 어떠하랴, 하고 모자의 정을 스스로 견잡을 길이 없어 마침내 달려 가서 손을 잡고 서로 영결하고 다시 달려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중한 죄를 지고 귀양 온 몸으로 일시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법을 범한 것은 역시 유치한 소견에 무식하게 망동한 것이오니, 신의 죄가 크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명이라고 까지 한다면 실로 심히 원통하웁니다. 망명이란 것은 신자(臣子)로선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온데, 신이 아무리 불초하여도 조정에서 단 하루나마 명색이 재상으로 대우 받던 자로서 어찌 감히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상좌(林上佐)와 김윤호(金潤浩)들이 자기에게 죄책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해서 근거 없는 말을 지

어떤 그 정상이 너무나 소연하게 드러나 은폐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본래 도망이라면 반드시 깊은 방을 이용하여 종적을 감추어 남이 모르도록 하는 법인데, 어찌 밝은 아침에 수직(守直)하는 사람을 시켜 군수에게 고할리가 있겠습니까. 또 수직하던 사람이 도망으로 알았다면 포착 고발하지 않을 리도 없기니와, 군수로서도 어찌 군졸을 시켜 체포하지 않고 두었겠습니까. 만약 잡으려 했다면 수리(數里) 안에서 그 포착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죄수를 잃고도 즉시 잡지 않고 편지를 두 번이나 하고, 은근히 음식물까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상좌의 말에, '신이 단 한필의 말을 타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피로하여 고원(孤院)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상좌 6, 7명이 앞질러 와서 체포했다' 하오나, 이는 터무니 없는 기만이옵니다. 본시 도망하는 자란 지름길로 빠져 빨리 달려 멀리 가는 것인데, 어찌 3일 동안이나 제 집에서 가까운 지름길에서 배회하여 추적하는 사람이 체포하기를 기다려겠습니까. 하물며 <잡힌 곳> 고원이 아니라 마월현(磨月峴)으로 읍내(邑內)에서 더욱 가까운 곳이며 또 거기서 만난 사람은 임상좌들 6, 7명이 아니고 김윤희 한 사람이 신의 종과 더불어 군수의 편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신도 단기(單騎)가 아니고 신의 아우와 친족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사오며, 말도 피로하지 않았으며 신이 윤희와 같이 사기점(砂器店)에 들어갔을 때 점주가 윤희에게 술까지 대접하였습니다. 대질 심문한다면 가히 아실 것이오며, 노정의 원근과 신이 댕던 말의 약하고 실한 것도 모두 징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실정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감수하여 한이 없겠사오나 책벌이 아무리 적다 해도 무함으로 억울하게 씌워졌다면 이는 평생의 원통함이 아니겠습니까" 했고, 또 그 세켓번 상소에 말하기를, "짐승도 궁하면 그 소리가 반드시 슬프게 나니, 어진 이가 <이를> 듣고 측은하게 여겨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짐승이 그 소리를 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온 그것이 자연히 사람을 움직여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본래 불초하와 성상께 죄를 졌사오나, 일찌기 대부의 자리에 있었던 바인데, 이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는 성대에 원통하고 억울함을 당하여 스스로 가슴을 치고 하늘을 불러 마지 않습니다. 만분지 일이라도 굶어 살피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나이다. 신의 원통하고 억울한 실상은 초사(招辭)죄인의 供述書)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삽고, 또 두번 상소에 다했습니다. 변명될 만한 형적과 의거할 만한 증거와 살핀만한 정상으로서 소연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 뿐이 아니온데, 다만 정웅들 수사명의 무근거한 소리에 의거하여 신을 망명으로 단정하신다면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정웅의 말을 증거로 신을 심문한 것이온데, 웅의 날조한 정실이 이미 황세헌(黃世獻)과의 대질에서 다 드러났사오는데, 어찌 신에게 있어서만은 웅의 말을 옳다고 믿으시렵니까. 한 가지 일에 관련되었다가 세헌은 억울함이 풀리고 신은 억울하게 죽게되면 어찌 원통하지 않사옵니까. 신이 이미 자복하고도 오히

러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신이 두차례의 매를 맞고 그 독기가 번져 올라 종통(腫痛)이 심하여 생명이 한 오리의 실과 같사오며 한 차례의 곤장 심문만 더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꼭 죽을 것이요, 또 위엄이 두려워서 자복한 것이요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하였다. 이에 임금이 특히 사형을 감하여 제주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도록 명했다. 『기묘록』·『패관잡기』·『당적보』의 합록 (권8.356:3-358:23)

김 정 (金 淨)

김정(金淨)은 자는 원충(元冲)이며, 호는 충암(冲庵)이요,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이다. 기묘년에 금산(錦山)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진도(珍島)로 옮기고, 경진년에 다시 국문을 받고 제주(濟州)에 안치(安置)되었는데, 신사년에 전일의 망명했다 하여 추후 논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 이때 나이 36세였다. 병오년에 나서 갑자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정묘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아들이 없어 형인 광(光)의 아들 철보(哲保)로 그 뒤를 이었다. 철보의 아들 성발(聲發)은 문과에 올랐다. 인종(仁宗)이 관직 회복시킬 것을 명했고, 선조 때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내려 주었다. 그 뒤에 시호를 문간(文簡)이라고 고쳤다.

○올해년에 순창군수(淳昌郡守)로 있을 때 신비(愼妃 중종의 첫 왕비인 단경왕후(端敬王后))의 복위(復位)를 청했다가 의금부에 투옥되어 사태가 위험하였으나, 대신의 구원으로 보은(報恩)에 도배(徒配)되었고, 병자년 여름에 석방되어 곧 옥당(玉堂)에 들어 갔으며, 정경축년에 부제학(副提學)에 발탁되었다. 공이 임명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서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 광조가 함께 국사에 협력하자고 글을 보내어 간곡히 권하매 공이 마지 못해 나왔는데, 기묘년에 형조판서로 투옥되었다가 귀양갔다. 『기묘록』 (p.367:9-25)

○공이 남쪽으로 귀양갈 때 순창을 지나가니, 순창 백성이 서로 다투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옛 사또님이라고 했다. 제주의 풍속이 미신(迷信)을 숭상하여 잡귀의 당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예법에도 몽매했다. 이에 공이 상례·장례·제례의 의절(儀節)을 편찬하여 풍속을 계몽 인도하니 풍속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은 천분이 심히 높아서 식견이 뛰어나고, 효행과 우애가 천성에서 우러나왔으며, 학문이 정하고 깊었다. 평소에도 <언제나> 단정히 앉아 있어 그 문안과 뜰안이 한적하였다. 벼슬길에 나가기를 즐기지 않아 득의했을 때에도 시기를 보아 용퇴할 뜻을 항상 품고 있었다. 『명신록』.

“공은 엄격하고 무계있어 말과 웃음이 적고 그 문장이 정하고 깊었다. 멀리 서한(西漢)의 풍을 따랐으며 경전(經傳)에 잠심(潛心)하여 곳곳이 밤낮으로 끓어왔고 살림을 돌보지 않았으며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행장

“경진년 윤달 든 가을철에 <제주로 귀양가다가> 해남(海南)의 바닷가에 서 있는 노송나무 밑에서 쉴 때 세 수의 절귀를 지어 소나무 꺾질을 벗기고 썼는데, 그 하나는, “무더운 여행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리워 줄 셈으로 산중을 멀리 떠나와서 긴 몸 꾸부리고 서 있는 것이겠지, 손 나무꾼 도끼로 베어가고 지나는 행상마저 가지 꺾어 밥 지으니 그때의 풍탁을 진시황(秦始皇)만큼 아는 이도 없구나”(欲庇炎程以死民 遠辭巖壑屈長身 杖斧日尋商火煮 知以加政亦無人)하였고, 또 한 수는, “바닷바람 불어올 때 <솔> 슬픈 소리 저 멀리 울리고, 산달 외로이 떠 오르니, <솔> 여윈 그림자 성글기도 하다. 공은 뿌리 땅 밑 같이 뻗어 있으므로 눈서리 꺾은 자태 아직 남아 있다”(海風吹過悲聲遠 山月孤來瘦影疏 賴有直根泉下到 雪霜標格未全除)하였고, 또 그 다음 절귀는, “가지는 꺾인 채 일새는 삼사(參差) 도끼에 찍힌 몸을 모래위에 눕히고자. 슬프다 동량지재 당초 희망 인젠 그만이다. 뻗뻗한 그대로 해선의 뗏목이나 되리”(枝條折葉鬱於斤斧餘形欲臥沙 望絕棟梁嗟已矣 查牙堪作海仙槎)하였다. 이 시는 사림(士林) 사이에 많이 전승(傳誦)되어 심정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재적언』 · 황토기사.

“공이 그 외척(外姪)에게 답하는 글에, 제주의 풍토를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그 물산을 서술한 곳은 흡사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와도 같았으며, 그 문장의 광채는 그보다도 더 하다는 평이 있었거니와, 또 그 문자의 비장함이 실로 근세에 볼 수 없는 바였다. 글 가운데 “한라산(漢虛[拏]山) 절정에 올라 창망한 바다를 사면으로 둘러 보며 남극 노인성(南極老人星)을 굽어보고, 월출(月出)·무등(無等)의 모든 산을 가리키며 내다보니 기이한 흥증을 씻을 수 있다. 이태백(李太白)이 이른바, 「구름 드리움은 대봉(大鵬)의 활개 침인가. 파도 이는 곳에 거오(巨鰲)가 잠겼는가, 한 이가 이에 당할 수 있을 것이언마는, 내 귀양 온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올라 가 볼 수 없음이 애석하다. 그러나 남아가 났다가 큰 바다를 횡단하여 색다른 지역을 발로 밟고, 색다른 풍속을 눈으로 보는 것도 또한 세간의 기이하고 장쾌한 일이다. 대저 오려 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오지 않으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듯하다. 어찌 탄식할 것이냐” 하였고 또, “골육이 멀리 격리되고 친지의 소식도 아득한데, 옛날 함께 놀던 이로써 벌써 죽은 이가 많으니 하늘가에 붙인 외로운 이몸이 얼마나 더 세상 변고를 맛 볼 것인지. 일찌기 평상시의 마음 가지로는 <사생에 대하여> 태연히 순리로 받으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홀연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또한 처량한 느낌이 없지 않다” 하였다. 패관삼기

공이 죽을 때에 지은 절명사(絶命詞)에, “절도(絶島)에 몸을 던져 외로운 혼을 지으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버리고 천원도 막혔다. 이 시대를 만나서 이 몸을 죽이노나. 구름을 타고서 천제(天齊)의 궁궐을 둘러서 굴원(屈原)을 좇아 높이 소요하련다. 어둡고 긴긴 밤을 언제 아침이 되려나. 밝은 이 단심을 풀 속에 묻고, 당당한 장한 뜻은 충도에서 꺾이었네. 아 천주만세 후에 응당 나를 슬퍼하리” 하였다. 동각삼기·기묘록

그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마음 가짐을 스스로 반성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지금 이런 기화(奇禍)를 당했다. 그러나 이렇다고 너희들은 게을리 하지 말라” 하였다. 기묘록 공의 당실(堂姪) 응교(應敎) 천우(天宇)가 유교를 수집하여 간행했다.

인종(仁宗) 말년에 관작을 회복하였다. 충암집(忠庵集)이 있어 세상에 행한다. 기묘록 (pp.369:9-371:9)

V

광해군

광해군의 휘는 혼(璉)이며, 선조의 둘째의 아들이요, 공빈(恭嬪) 김씨가 낳았다. 을해년에 나서 처음에 광해군으로 책봉되었다가 만력(萬曆) 기유년에 왕위에 올랐고 천계(天啓) 계해년에 폐위(廢位)되니 왕위에 있는 지 15년이었다. 강화(江華)에 방치되었다가 갑자년에 <이괄의 난리로 인하여> 태안(泰安)으로 옮겼고 반적(叛賊)이 평정된 다음 강화에 돌아왔다. 병자년 겨울에 교동도(喬桐島)에 옮겼다가 정축년 2월에 제주(濟州)로 옮겼다. 신사년에 죽었는데 인조 9년 67세였다.

양주(楊州) 적성동(赤城洞) 해좌(亥坐) 등(巖)에 장사지냈는데 공빈의 무덤과는 소 울음 <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거리였다. (p.5:1-8)

○병자년 겨울에, 폐주가 강화에서 옮겨 교동(喬洞)에 안치되었다. 정축년 서울에서 나올 때, 신경진(申景禎)·구광(具宏)·신경원(申景瑗)·신경인(申景儼)·홍진도(洪振道) 등이 연명으로 경기수사(京畿水使) 신경진(申景珍)에게 글을 보내기를, “선처(善處)하시오” 하였다. 이것은 <광해주를> 가만히 없애라는 뜻이었는데 경진이 따르지 않았다.

○정축년 2월 첨제(僉制)에는 5월로 되어 있다. 예 교동에서 또 제주로 옮기는데, 한 무사가 있어 <호송하는> 별장(別將)이 되기를 요청하여 <광해를 죽여> 공을 세울 계책이었으나 언지 못하였다. 대개 이것은 경진 등의 뜻이었다. 병자록

○광해를 옮기는데, 따라 간 궁비(宮婢) 중에 성질이 모질고 교활한 자가 있어 모시는 데 삼가하지 않으므로 광해가 꾸짖으니, 계집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영감이 일찌기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온갖 관청이 다달이 올려 바쳤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엄치 없는 더러운 자들에게 반찬을 요구하여 심지어 김치판서[沈菜判書]·잡채참판(雜菜參判)이란 말조차 있지 않았소. 더욱 시절을 맞추어 비단 용포와 털옷을 올리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사사로 드리는 길을 크게 열어, 심지어는 장사치·통역관으로 하여금 벼슬 길에 통할 수 있게 하였소. 후궁의 의복과 식물은 또 각각 그 말은 관청에서 올려 바쳤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벼슬 구하고 송사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민심을 크게 무너지게 하였소. 영감께서 사직을 삼가 받들지 못하여 국가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섬에 들어 온 후에, 도리어 나를 책망하여 삼가 모시지 않는다고 하니, 속으로 부끄럽지 않소. 영감께서 왕위를 잃은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죄로 이 가시덩굴에 갇혀 있는 것이요” 하였다. 이에 광해는 고개를 숙여 한마디 말도 없이 속에 다만 탄식할 뿐이었는데, 이것을 본 자가 그 말의 폐악하고 교만한 것을 분해하지 않은 이가 없어 이르기를, “반드시 이 계집종에게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다른 일로 인하여 과연 좋지 못하게 죽었다 한다. 『공사견문』

○그때, 제주에 폐주를 옮기는데, 호송하는 사람에게 엄중히 분부하여 그 가는 곳을 말하지 않고, 배 위의 4명은 모두 휘장으로 막았다가, 배가 닿는 것을 기다려 비로소 알리었다. 이 때 무신(武臣) 이원로(李元老)가 호행별장(護行別將)이 되었는데, 뱃길이 험난하여 거의 죽을 뻔 하기가 여러 번이었다. 배가 이미 머물러 휘장을 떼고 내리기를 청하여 제주라고 알리니, 광해가 깜짝 놀라며 크게 슬퍼하여, “내가 어찌 여기 왔느냐. 내가 어찌 왔느냐” 하였다. 제주목사가 맞아 문안하며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하기를, “공자(公子)께서 만약 임금으로 계실 때,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물리쳐 멀리하고, 환관(宦官)과 궁첩들로 하여금 조정 정사에 간여하지 않게 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곳에 오셨을 것입니까. 덕을 닦지 않으면 배 가운데 사람이 모두 적국(敵國)이라는 옛말을 모르십니까” 하니, 광해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을 못하였다.

○광해가 제주에 있을 때, 이시방(李時昉)이 목사였다. 고을 사람을 단속하여 밥상을 깨끗이 하여 올렸더니, 광해가 대접이 전과 다른 것을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전일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일 것이다” 하니, 늙은 궁인이, “아닙니다” 하였다. 광해가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궁인이 말하기를, “대감이 <전일에> 신하들을 등용하고 내치는 데 한결같이 후궁의 비방과 칭찬을 따랐습니다. 이 목사가 만약 일찌기 전일에 부정한 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자라면, 반드시 옛 임금을 박대하여 전일의 저의 행적을 덮으려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정성을 다하기가 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

었다. 광해가 뒤에 시방(時昉)인 줄 알고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공사전문』

광해가 심에 위리안치된 후에, 중사(中使)가 그 방 가운데서 한 장 종이를 얻어 올렸는데, 그것은 곧 부인의 편지로서 다만 안부 뿐이었다. 임금이 안팎이 엄하지 않았다 하여 지킨 자를 처벌하고, 또 한 방에 있던 임소용(任昭容)을 잡아와서 대궐 뜰에서 국문하였으나, 끝내 그 편지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임을 몰랐다. 신희(申欽)이 국청(鞠廳)의 여러 재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옛 임금의 종희(寵姬)가 형벌 받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못하고, 또 그 형 받는대를 내려다 보고 지휘하게 되니 후세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공사전문』

『신사년 7월 7일 병자복에는 2일이라 하였다. 예 광해가 제주에서 죽으니, 나이는 67세였다. 부고를 듣고 임금은 3일 동안 아침 상을 폐하고 소찬을 드렸으며, 특히 예조참의 채유후(蔡裕後)를 보내어, 그 낭료(郎僚)들을 거느리고 중사(中使)와 함께 호상(護喪)하여 오게 하고, 각도 감사가 배행하여 제전(祭奠)을 감독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장례를 왕자군(君) 1등의 예(禮)로 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특히 명하여 수도(隧道)를 쓰게 하고 장생전(長生殿) 재궁(梓宮 임금의 관)으로 관을 바꾸고 엄(斂)을 다시 하게 하였으며, 승지를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고 10월 4일 양주(楊州)에 장사 지냈다. 평일에 신하노릇 한 이는 모두 소찬을 나눌까지 하였다. 『공사전문』

숙종 27년 신사 3월 26일, 주강(書講)에 승지 이세재(李世載)가 나아가 아뢰기를, "광해의 묘가 양주에 있어, 그 봉사하는 외손이 가토(加土)를 하려고 하여도 힘이 미치지 못하여 역군을 정하여 얻으려고 예조와 비국(備局)에 호소하였으나 전하께 아뢰지 않습니다. 광해를 물리친 후에 전하께서 그 아픈 것을 들으면 반드시 약을 내렸고 죽음에 미쳐서도 재상들이 장사를 삼가하지 않았다고 소를 올리기가까지 하였으니, 이제 무덤에 가토하는 때, 마땅히 역사를 도와 주는 길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옳다고 하여 역군을 내려 주라 명하였다. 『공사전문』 (pp.506:7-508:22)

IX

악(嶽 명산名山) · 바다 · 독(瀆 강하江河) · 산천

○명산(名山) 대천(大川)은 동에는 치악산(雉嶽山 원주(原州)이요, 남에는 계룡산(鷄籠山 공주(公州) · 죽령산(竹嶺山 단양(丹陽) · 우불산(弓佛山 울산(蔚山) · 주흘산(主屹山 문경(聞京) · 금성산(錦城山 나주(羅州)이요, 중에는 목덕산(木覓山 서울 京城 안)이요, 서에는 오관산

(五冠山 장년(長湍))과 우이산(牛耳山 해주(海州))이요, 북에는 감악산(紺嶽山)과 의관령(義館嶺)이다.

<이 밖에 또> 시에 마니산(摩尼山 강화(江華)), 남에 한라산(漢拏山 제주(濟州)), 북에 백두산(白頭山 갑산(甲山))을 더 넣었다. 이상은 사전(祀典)에 추가해서 실린 것이다. (p.259:19-25)

“계미년에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한라산은 해외의 명산(名山)으로 홀로 사전(祀典)에서 누락(漏落)되었습니다” 하니, <숙종이> 명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습니다. 영의정 신완(申琯)이 헌의(獻議)하기를, “명산·대천이 모두 사전에 실려 있는데, 한라산만이 홀로 누락되었으니 예조의 계사(啓辭)에 이른 바 『오례의』(五禮儀)가 완성되기 전에는 탐라(耽羅)가 아직 귀순(歸順)하지 않은 때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것 같다는 것이 그럴 듯합니다. 사전(祀典)에 추가해서 기재한다 해도 아마 거리킬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은 헌의하기를, “본주(濟州) 계본(啓本)에 이른 바, 『오례의』를 편찬·완성할 때에 제주는 순종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했다는 말은 고거(考據)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 혹 해외로 구별하여 내지(內地)와 다르다 하여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국전(國典)에 없는 것을 이제 새로 행하기는 어렵사 오나, 다만 제주의 사세가 다른 모든 도(道)의 주(州)·군(郡)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만일 본주로 하여금 춘추로 향사(享祀)하기를 제후(諸侯)가 봉내(封內) 제후가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안의 산천에 제사하는 예(禮)와 같이 한다면 혹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한라산은 해외의 명산으로써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않아 흠결(欠闕)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영상의 논의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pp.260:21-261:9).

여러 제단〔諸壇〕

“숙종 정축년(1707)에 임금이 풍운뢰우단에 비를 비는제사를 지낼 때에 전교를 내리어 이르기를, “옛날에 명나라 태조(太祖)가 날이 가무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대단히 염려하여, 도보로 산천단(山川壇)에 나가기까지 하였는데도 그 피로를 스스로 잊었다 한다. 나는 일찌기 교단(郊壇)에 거동할 때, 단의 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수레(輿)를 내렸으니, 그 길어간 뜻에 비하여 볼 때 어찌 어그러진 것이 아니겠는가. 내 마음에 진실로 미안하다. <이번에는> 예조에 명하여 수레에서 내리는 곳을 조금 먼 곳에 설치하게 하여 내 마음을 조금 편케 하라” 하였다.

“45년(1710)에 제주 목사 정동후(鄭東後)가 장계하여 아뢰기를, “본도(本島)에 본래 풍우뢰우단(風雨雷雨壇)이 있어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경건(敬虔)하게 향사를 받들어 왔습니다. 임오년에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가 되어서는, 주·현관(州縣官)으로서는 본분에 감히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여 장계를 올려서 철폐(撤廢)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풍우(風雨)가 고르지 못하고 재해가 자주 발작하오니, 만일 옛날과 같이 <다시 풍우뢰우단을> 설치하고,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따라 향과 축문을 내리어 보내주시면 본분에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혐의도 없을 것이며, 또 백성들의 의혹도 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고 이에 좃았다. (p.264:1-8)

○제주(濟州) 굴림서원(橋林書院) 만력 무인년에 세워고 숙종 임술년에 사액하였다: 김정(金淨) · 송인수(宋麟壽) · 정은(鄭蘊) · 김상헌(金尙憲) · 송시열(宋時烈) 別詞 · 이약동(李約東) · 이회(李繪) 호는 만오(晩梧)이며 제주 목사를 지냈다. (p.310:7-9)

X

○40년에 임금이 호서(湖西)의 진곡(賑穀)이 무사히 제주(濟州)에 도착함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해장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기를, “천리 남쪽 바다에 잘 건느기 어려운데, 바람 뒤의 이속(移粟)이란 역시 곤란하였다. 보내온 소식에 선박이 탈없이 닿았다니, 분명코 곤궁한 자를 건지시려는 하늘 뜻이리” 하였다. (p.421:20-24)

XI

○제주(濟州) : 성이 있다. 본래 탐라국(耽羅國)이니, 혹은 탁라(罔羅)라고도 한다. 신라 때의 이름은 성주(星州)라고 하는데, 고려 때 고쳐서 군을 만들었다가 현으로 낮추었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원(元)나라에서 말(馬)을 기르는 목장을 만들었으나 조금 후에 도로 고쳐서 제주목(濟州牧)으로 하였다. 태종(太宗) 임오년에 좌우도지관(左右都知管)을 두었고, 세종(世宗) 을축년에 상부진무(上副鎭撫)로 고쳤으며, 세조(世祖) 병술년에 절제사(節制使)를 두었고, 예종(睿宗) 기축년에 목사(牧使)로 고쳤다. ○탐탁라(耽罔羅) · 동영주(東瀛州)라고도 한다. ○10면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육로(陸路)로 9백 36리이고, 수로(水路)로 9백 70리이다. ○고내현(高內縣) · 에월현(涯月縣) · 괘지현(郭支縣) · 귀덕현(歸德縣) · 명월현(明月縣) · 신촌현(新村縣) · 함덕현(咸德縣) · 금령현(金寧縣). 이상의 각현(各縣)은 모두 직촌(直村)이다. (p.229:4-13)

진(鎭) · 보(堡)

○정의(旌義) 수산보(水山堡) 옛 대수방호소(大水防護所)인데, 현의 동쪽 25리에 있다. 만호.

대정(大靜) 차귀보(遮歸堡) 원의 시주 25리에 있는데, 옛 방호소(防護所)이다. 만호 (별집 권7
번어선고 진보, p.312)

황당선 바다 위에 출몰하는 외국 배

세종 때에 7세 된 계집아이가 제주(濟州)에 와서 닿았는데, 배 안에 거문고 하나 술두
루미 하나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있었다. 명하여 궁중에서 키우게 했는데, 자라서 왕
손(王孫)의 부실(副室)이 되었다. 『성호세설』

배가 제주에 표류했는데, 배 위에 7세 된 계집 아이와 『자치통감』 한 질(帙) 및 상아
휨(象牙笏) 있을 뿐이었다. 계집아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중국 재상(宰相)의 딸이며 성
이 김씨인데, 술사(術士)가, “내가 부모에게 이롭지 않고 외국으로 가면 심히 길(吉)하다
고 해서 빈 배에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임금이 궁중에서 키우기를 명했으며, 자라서
왕손 강양군(江陽君)의 부실이 되었다. 성관(姓貫)은 「대원」(大元)이라 칭하였다. 강양군
은 적자(嫡子)는 없고 이 김씨가 세 아들을 낳았으며, 증손 성중(誠中) 호는 과곡(坡谷) 경
중·(敬中)·양중(養中) 삼형제가 과거에 올랐고, 그 종계(從弟)는 시중(時中) 음사(蔭仕)로
서원(庶尹)이며 자손이 번창하여 잇달았다. 상아휨을 보물로 전하여 지금도 자손이 과거
에 오르면 반드시 손에 잡고 유가(游街)한다. 익술(翼述)

경인 가정(嘉靖) 9년 에 유구국인(流球國人) 10명이 제주도에 표류하여 도착했는데, 정조
사(正朝使) 오세한(吳世翰) 등 편에 압송하여 주문(奏聞)하게 하였다. 『고사촬요』
(p.361:1-22)

가을에 복건 사람 진원경(陳元敬) 등과 동양인(東洋人) 막생가(莫生歌), 서양인(西洋人)
「마리이」(馬里伊) 등이 제주도에 표착해 와서 진하사(進賀使) 정탁(鄭琢) 편에 돌려 보내
고 아뢰었다.

갑신년 가을에 복건사람 원교주(阮喬柱)가 경상도 울산군에 표착해 왔으므로 동지사
윤인함(尹仁函) 편에 돌려 보내고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황제의 명에 의하여 송환하는
사람의 수가 십여 명 이상에 이르면 상을 주도록 하였다.

병신년에 복건 초예간(哨倭官) 임일황(林日煌) 등 46명이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표류
해 왔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각각 의복·식량·여비 등을 주어, 통사 박인검(朴仁儉)을
보내어 요동에 압송하였다. (p.363:6-19)

신해년에 복건 사람 임운대(林潤臺) 등 11명이 제주에 표류해 왔으므로, 의복과 식량
을 주어 천추사 이순경(李順慶) 편에 보냈다. (p.364:17-18)

- 을축년에 중국 사람 주진국(朱鎭國) 등 11명이 식량을 운반하다가 제주로 표류해 왔으므로, 예에 따라 압송했다. (p.365:14-15)
- 갑술년에 중국사람 이여과(李如果) 등이 제주도로 표류해 왔으므로, 풍보국(豐報國) 등 32명이 태안(泰安)에 표류해 왔으므로 모두 가도로 압송했다.
- 유구국(流球國) 태자(太子)가 표류해 왔다. 유구국조에 상제하다.
- 정미년에 복건(福建) 열서도(熱嶼島) 사람 진득(陳得) 등 95명이 일본에 장사갔다대 정(大靜)에 표류해 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갑신년 후에는 <청나라> 군사가 이 섬에 오지 않으므로 머리도 깎지 않고 바다로 나온 지 10여 년이나 되는데 지금은 연해(沿海)가 평온하다는 말을 듣고 부모 처자를 찾아 돌아간다고 했다. 압송하고 예부(禮部)로 이첩하였다. 영력(永曆) 1021년의 역서(曆)를 가지고 왔다. (p.367:2-7)

유구국(流球國)

- 중종 경인년에 유구 사람이 표류(漂流)하여 제주도에 있었다. 황당선(荒唐船) 조에 들어 있다. (p.447:7)
- 광해주 임자년에 유구국 사람 마희부(馬喜富) 등 8명이 바다에 표류(漂流)되어 제주도에 이르니, 옷과 양식을 주고, 하지사(賀至使) 조존성(趙存性)에 붙여서 데리고가 황제에게 그 연유를 아뢰며, 그리하여 자문(咨文)을 유구국에 보내어 알리었다. (p.449:10-13)
- 인조 말년에 유구국의 태자(太子)가 표류되어 제주도에 이르러, 그곳에 지키고 있던 관리에게 살해를 당하니, 그 뒤부터 드디어 왕래가 끊어졌다. 출판지.

유구국 태자가 사형 당할 때에 시(詩) 한 수를 지었으니 그 시에, “요(堯)의 말로써도 걸(桀)의 옷 입을 몸을 어려우니, 죽는 마당에 하늘에 하소연할 겨를이 있으랴. 삼량(三良)이 구명에 들어가니 어느 누가 대신 죽겠는가. 이자(二子)가 배를 탔으니 도적놈도 <마음이> 불인(不仁)하다. 백골이 사장(沙場)에 굴러다닐 제, 길리나니 풀 뿌리 뿐이요, 외로운 혼이 고국에 돌아간들 어느 친척이 불쌍히 여기랴. 조천관(朝天館) 아래 흘러가는 물만이 길이 나의 슬픔을 안고서 만년 동안 울부짖겠구나”
 堯語難明桀服身 隨刑何暇訴蒼旻
 三良入穴人誰贖 二子乘舟賊不仁
 骨累沙場纏有草 魂歸故國弔無親
 朝天館下滔滔水 長帶餘悲咽萬春

하였다. (pp.449:19-450:5)

삼한

- 또 주호(洲胡)가 있었으니,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 큰 섬에 살았다. 사람들

의 키가 조금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고, 선비족(鮮卑族)처럼 머리를 깎았으나 다만 가죽[皮] 옷을 입었다.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그 옷은 위만 있고 아래는 없어 대략 아랫몸이 나왔는데, 배를 타고 성시(城市)를 왕래하였다. 이상은 모두 『동문광고』(별집 권19.481:11-15)

신라

『문무왕(文武王) 이름은 법민(法敏)이니 태종왕의 내제(太子) …(중략)…
임술년에 탐라국(耽羅國)이 항복하였다. (별집 권19.492)

백제의 속국

『주호국(州胡國)은 『후한서』에 “마한의 서해(西海) 섬 중에 있었다” 하였으나 그 땅을 알 수 없다. 마한조에 상제하다.

○ 탐라국(耽羅國)은 혹 탐모라(耽牟羅)라고도 칭하며, 탁라(絜羅)라고도 하였다. 또 남라(南羅)라고도 하며, 동영주(東瀛洲)라고도 한다. 남해 가운데 있으며 넓이가 4백여 리이다. 지금의 제주도다.

○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삼신인(三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지금 진산(鎭山) 북쪽 산록에 구멍이 있어 모흥(毛興)이라 하는데 이 곳이 그 땅이다. 가장 나이 많은 이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그 다음이 고을나(高乙那), 그 다음을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3명이 궁벽한 곳에서 유렵(遊獵)하여 가죽은 옷을 만들고 살[肉]은 먹었다. 어느 날 자니(紫泥)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동해 가에 떠내려 왔는데, 붉은 띠에 붉은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왔다. 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3명과 · 망아지 · 송아지 · 5곡의 종자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사자가, “나는 일본국의 사신이다. 우리 임금의 세 딸을 낳았는데 서해 가운데 산에 신의 아들 3명이 내려와서 장차 개국하고자 한다 하시고, 지금 신(臣)으로 하여금 세 딸을 모시고 오게 하였다” 하고, 사자는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3명이 나누어 아내로 삼고 각각 도읍을 정하였는데 날로 변성하였다. 『여지승람』 · 『고려사』 고기(古記)

○ 15대 손(孫) 고후(高厚) · 고청(高淸) · 곤제(昆弟)의 형제 3명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닿았는데, 아마 신라의 성시(盛時)였을 것이다. 이 때에 객성(客星)이 남방에 나타났으므로 태사(太史)가, “이국인(異國人)이 와서 조회(朝會)할 징조입니다”

고 아뢰었다. 후(厚) 등이 이르자 왕이 가상히 여겨 후를 성주(星主)라 칭하였는데, 하늘의 별을 움직여 정조를 알려주었다는 뜻이다. 고청(高淸)으로 하여금 임금의 가량이 사이로 나오게 하며,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여 왕자라 칭하였고, 또 그 끝 동생을 도내(都內)라 부르고 읍호(邑號)를 탐라(耽羅)라 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탐진에 배를 대어 신라에 조회하였기 때문이다. 각각 배로 만든 일산과 옷과 띠를 주어 보냈다.

이후로 자손이 번성하고 신라를 공경히 섬기니 드디어 고(高)를 성주(星主)로 삼고, 양(良)을 왕자로 삼고, 부(夫)를 도상(徒上)으로 삼았다. 후에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 여지승람 · 고려사 고기(古記)

후에 백제에 속하였다. 문주왕 2년 병진에 방물(方物)을 갖추어 조공을 바쳤다.

동성왕(東城王) 21년에 탐라국에서 공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친히 정벌하러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렀는데, 탐라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빌었으므로 중지하였다. 여지승람

백제가 멸망하자 신라 문무왕 원년에 탐라국 임금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항복하여 왔다. 여지승람. 그 때 백제가 망한 지 얼마 안 되어 음률이 아직 백제의 관직 명칭을 쓰고 있다.

고려 태조 20년에 태자 말로(末老)를 보내어 조회하여 왔으므로 성주(星主) 왕자(王子)에게 작위를 내려 주었다. 여지승람.

숙종 10년에 탁라(罔羅)를 고쳐 탐라군이라 하였다. 의종(毅宗) 때에 낮추어 현령(縣令)으로 하였다. 여지승람.

목종(穆宗) 5년에 탐라 산에 네 구멍이 열리고 빨간 물이 솟아나와 5일만에 멈추자, 물이 와석(瓦石)을 이루었다. 그 후 10년에 산(山)이 탐라 바닷 가운데서 솟아 나왔다.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캄캄하게 끼었고 지진이 우뢰 같았는데, 밤낮 7일 만에 비로소 개이기 시작하였다. 산 높이가 백여 길이나 되었고, 둘레는 40여 리였으며, 연기와 날기(嵐氣)가 그 위를 가리워서 바라보면 유황색(硫黃色) 같았고 초목이 없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목종이 태학박사(太學博士) 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가보게 하였더니, 공지가 봄소 산 아래에 가서 그 형상을 그려와서 아뢰었는데 이름 붙이기를, 「시산(瑞山 상서로운 산) 지금은 대정현(大靜縣)에 속한다. 여지승람 이라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임금이 모후(母后)가 강조(康兆)에게 시해되는 변을 당하였고, 원종(元宗) 때에는 몽고 군사를 피하여 강화로 갔다가 나중에 환도하였는데, 장군 배중손(裒仲孫)과 노영희(盧永禧) 등이 야별초(夜別抄)의 군사로서 강화에서 반란을 일으켜, 충실의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세워 왕으로 삼고, 거기에 머물렀던 백관의 처자 및 공(公)·사(私)의 재화를 크게 약탈하여, 뱃길로 남으로 달아나서 진도(珍島)에 응거하였다

가 돌아서 제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군사를 내어 나주(羅州)·전주(全州) 등의 주(州)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려에서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어 몽고 군사와 합동으로 위주(僞主) 온(溫)을 진도에서 쳐서 목베이니, 남은 무리가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 바다에 출몰하면서 충청도에 진입하여 고란도(孤蘭島)의 전선(戰船)을 불태우며,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 부사(副使) 이행검(李行儉)을 잡아갔으므로 개성에서 계엄(戒嚴)하였다. 14년에 또 김방경을 보내어 몽고 장수 혼도(忻都) 등과 합쳐서 함께 토벌하니, 적의 괴수 김통정(金通精) 등은 달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자살하였고, 그 무리 1천 3백 70여 명을 목베었다.

충렬왕 3년에 목마장(牧馬場)을 만들었다. 여지승람

○ 원(元)나라 세조가 제주에 목장을 설치하고 10만 필의 몽고 말을 풀어 놓아 번식하게 하고, 다루하치[達魯花赤]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곧 그 토지를 고려에 주고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였다. 『동문광고』 충렬왕(충렬王) 20년 조에 있다.

○ 20년에 왕이 원(元)에 조회하고 탐라를 돌려 주기를 청하니, 원나라 승상(丞相) 완택(完澤) 등이 아뢰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에 돌려 주었다. 다음 해에 제주(濟州)로 개칭하였다. 『여지승람』

○ 26년에 원나라 황태후가 또 구마(廐馬)를 방목(放牧)하였다가 31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돌려 주었다. 『여지승람』

○ 제주의 왕자(王子) 문창유(文昌裕)에게 성주(星主)의 칭호를 내려 주고, 고인조(高仁朝) 등에게는 장복(章服)을 내려 주었다. 『동문광고』

○ 공민왕 11년에 원나라에서 부추문(副樞文) 아단불화(阿但不花)로 탐라만호(耽羅萬戶)를 삼았다. 『여지승람』

○ 원나라 목자(牧子)가 강폭하여 여러 번 나라에서 보낸 목사(牧使)와 만호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므로, 김유(金庾)가 목자를 토벌하고 원나라에 호소하여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원나라에 아뢰어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를 임명하고 전대로 목자가 기르는 말을 골라서 바치기를 청하였더니 황제가 좃았다. 『여지승람』

○ 명(明)나라가 일어나자 전마(戰馬) 만 필을 바치라고 하므로, 임금이 제주에 사신을 보내어 말[馬]을 바칠 것을 명하였더니, 원나라 목자(牧子) 함치[哈赤] 등이, “이 말은 곧 세조(世祖) 황제가 기른 것인데 어찌 명나라에 바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난을 일으켜 관리를 죽이니, 임금이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을 보내어 그들을 죽이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동문광고』

○ 일찌기 원나라 순제(順帝)가 천하가 크게 어지러운 것을 보고, 제주도에 들어가 보존하고자 공장(工匠)을 섬으로 보내어 크게 궁실을 짓도록 하였다가, 계획이 미처 시작되

기도 전에 명나라 군사에게 물리어 북쪽 개평(開平)으로 날아났다. 공민왕이 영전(影殿)을 짓는 역사에 제주도에서 원나라 공장(工匠) 원세(元世) 등 11명을 붙였더니, 이들이 개성에 이르자 원세가 재상에게 말하기를, “원나라 황제가 토목(土木) 공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다가 민심을 잃었으므로 스스로 사해(四海)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우리들로 하여금 제주에다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섬에 오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몸은 도망하여 우리들을 이 모양으로 의식(衣食)을 잃게 했습니다. 원나라가 천하에 광대한 나라였음에도 백성을 노고(勞苦)롭게 하다가 패하였습니다. 고려가 비록 크다 하여도 능히 인민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원컨대, 재공(諸公)은 임금에게 아뢰소서” 하였다. 동문광고

우리 태종 2년에 성주(城主) 고봉례(高鳳禮)와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 등의 성주 왕자의 칭호가 참람되다 하여 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管)으로,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고쳐 주기를 칭하였다. 여지승람

진산(鎭山)은 한라산(漢拏山)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구름과 은하수(雲漢)를 움켜잡아 끌어 당길 수 있다는 뜻이며,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다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며, 원산(圓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궁륭(穹窿)하게 둥글다는 것이며, 그 산마루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지척을 가릴 수 없으며, 5월에도 눈이 있다. 여지승람

조천관(朝天館)은 삼읍(三邑) 제주·정의(제주·旌義·大旌)에서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이 곳에 배를 댄다. 여지승람

남사고(南師古)는, “백두산맥(白頭山脈)은 동쪽의 대해(大海)로 들어가서는 일본이 되었고, 남쪽의 대해로 들어가서는 탐라(耽羅)가 되었다” 하였다. 또 세상에 전하기로는 그 땅이 노인성(老人星)의 분야가 되어 오래 사는 사람이 많으며, 또 방성(房星)의 분야가 되어 말[馬]이 잘 번식하며, 남방(南方)은 음(陰)이 통활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여자가 많아서 한 남편이 10명의 아내를 가진 자도 있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호랑이·표범·곰·담비·늑대 등 사람을 해치는 동물과, 여우·도끼·부엉이·까치 등이 없으며, 들사슴이 많은데, 곧 유구(琉球)의 지경이다. 서남쪽으로는 절강성(浙江省) 지방과 복건성(福建省) 지방이 가깝고, 북쪽으로는 강진(康津)·해남(海南)과 접(接)하여 세칭 수로가 9백리라고 하나, 그 실은 4백여 리라 한다. 이 곳의 토산물로는 감(柑)·귤(橘)·유자(柚)와 여러 가지 향목(香木)과 약재(藥材)가 나오는데, 영릉향(零陵香)·안식향(安息香)·종유(鐘乳)·백랍(白蠟)·석결명(石決明)·빈주(瓊珠)·앵무라(櫻鷓鴣)·우황(牛黃)·총모(鬘帽)·양대(梁臺) 등속이다. (pp.523:11-527)

인용원문

II

李 約 東

李約東字春甫號老村碧珍人縣令德孫之子 文宗辛未文科歷史祭官至參贊平靖公清白吏癸丑
辛年七十八

○ 公天資寬厚秉心堅確不喜浮華不治產業性又剛正無區區干請平生以清慎自許訓子孫必以見
金如石與金宗直同鄉友善晚年退居金山賀老村因以自號 金山立祠與伯 偉哉同享

○ 公牧耽羅出獵時嘗持一鞭及菴還因留掛於壁上後島人竇藏之每陳於牧使上官之際歲久蠹破
令畫工摹其鞭形而掛之

○ 自耽羅還船到洋中忽道回不前諸師皆懼失色公凝然正坐有一編禱前告曰島民感公清德賞一
金甲以贈使待公被甲之日獻之公即命投之洋中乃得利涉後人指其處曰投甲淵(卷6.595:16-25)

○ 初金淨始至錦山配所母在報恩相距一日程憂傷成病轉至危劇淨聞之馳往省之一作請於郡守
往見留姪子天富守舍乃使守直人告于郡守鄭熊具道其翌日將還之意熊修書送柑子雉酒使饋病
親適有命移配珍島金吾郎黃世憲以押移事下來淨轉到馳還即詣配所庚辰權臣以爲亡命拿致
鞠問淨引熊以證熊曰彼實逃走熊初不知贈以柑子雉酒云者乃其飾辭也熊欲免一時縱囚之罪
而以逃歸捕還爲辭而不顧上君子之陷死刑淨受刑三次裂衣上疏特命減死圍置濟州 〔己卯錄
裨官雜記〕

○ 疏曰頃者身犯重罪蒙恩竄配母則不知其子之惡過爲憂傷勺水不飲遂生大病纏綿床褥至危劇
命如一縷也乃急來報五內如裂廬未暇遠及意謂立朝無狀貽母憂以致危命若又不得一面永
訣人間地下痛有何極母子之情不能自忍遂乃馳覲執手相訣遂即馳還既負重罪身爲累囚而乃
顧私情干冒邦憲亦幼穉之性無識妄動臣之罪大矣至以爲亡命則寬責甚焉夫亡命臣子之所不
敢爲臣雖無狀國家一日號爲宰相而待之者安敢爲此林上佐金潤浩等畏於罪責搆捏虛辭情狀
昭昭敗露難掩者非一端矣夫逃者必也深夜潛蹤匿迹使人不覺豈有於朝時顯有守直人告邑守
者守直人若知其逃豈有不得提告爲邑守者又豈不即發軍捕得乎若果爾其被執豈免數里之內
乎況失囚而不即追捕豈復有通簡至再慙慙餽餉者乎上佐又謂臣單騎率一人困馬窘步於孤院
之前上佐等六七人前到執捉云此誣罔尤甚夫逃者必由斜逕疾馳遠達豈有三日徘徊於家鄉直
路一息地以待追者之見執乎況非孤院乃磨月峴去郡尤近相逢者非林上佐等六七人乃金潤浩
一人偕臣奴持守簡而來也臣非單騎率弟及族人率奴僕也馬又非困臣之偕潤浩入砂器店店主

饋潤浩酒若辨質則可知况道里遠近騎馬困健皆可驗罪雖重得其實則甘受無恨責雖微若受誣枉則終身抱憾云云又第三上疏曰伏以獸之窮也其聲必悲仁者聞之惻然痛心彼非擇其聲而然也發乎至情之中自然動乎人耳臣本無狀負罪 聖明然猶曾惻大夫之列今者含冤抱枉於仁政之下扣心呼天不能自己伏冀萬一垂察焉臣之冤枉之狀招辭詳矣兩疏盡矣可下之跡可據之證所察之情昭昭非一而只據鄭熊等數三無實之辭直斷臣以亡命豈不冤哉夫取證以訊臣者以熊言也熊之虛構之情既窮於黃世獻對質之時何獨於臣而取彼以爲正哉以一事世獻則得仲臣抱冤枉而死豈不冤哉臣既已服矣而猶且云云者臣既受二次杖毒衝攻腫痛憊悶性命如縷一杖必殞不能自堪且畏威命而然耳其情實則不然云云 上特命減死圍置濟州 『己卯錄』·『釋官雜記』·『黨籍補』(卷8 中宗朝：殺韓忠賜死金淨奇違, pp.708:11-709:9)

金 淨

金淨字元冲號冲庵慶州人敬順王之後己卯配錦山移珍島庚辰更翰安置濟州辛巳追論亡命使自盡年三十六丙午生甲子進士丁卯魁科無子取兄洸子哲傑爲后哲傑子聲發登文科 仁宗命復爵宣祖贈諡文貞 後改諡文簡

○ 乙亥以淳昌郡守請復愼妃拿致王獄事將問測賴大臣之救徒配報恩丙子夏賜環又入玉堂丁丑擢副提學公聞命震慄決意辭退趙光祖思與協力贊襄貽書敦勉公遂強起己卯以刑判下獄減死杖配 『己卯錄』(卷8.712)

○ 公嘗爲淳昌郡守時有政院吏傳求請簡李沆以承旨具啣着署而別無情詞公書一絕于簡後而復之曰會同書榻又驚署流落南荒一病軀天上華啣承旨李臨題遺憶故人無沆以比啣恨而追論者也 上同

○ 公之落南也道過淳昌淳昌之民爭持酒饌欄道涕泣曰吾舊使君也濟州之俗尚淫祀而刑禮制公述喪葬祭儀以導氓俗俗大變

○ 公天分甚高識見超邁孝友出天學業精深平居端坐門庭蕭然不樂榮進常懷急流勇退之志 『名臣錄』

○ 公莊重寡言笑文章精深灑灑遠追西漢沈潛經傳危坐窮晝夜不顧生產不通關節 行狀

○ 庚辰閏秋至海南之南涯憩道傍老松下吟成三絕白松木而書之曰欲庇炎程嗚死民遠辭巖壑屈長身村斧日尋商火煮知功如政亦無人又曰海風吹過悲聲遠山月孤來瘦影疎賴有直根泉下到雪霜標格未全除又曰枝條推折葉鬢髯斤斧餘形欲臥沙望絕棟梁嗟已矣查牙堪作海 仙槎士林傳誦莫不憐之 『思齋雜言』·『黃兎記事』

○ 公答其外姪書備錄濟州風土其紋物產處似相如子虛賦而光綵則加焉又文字悲壯實近世之所未見也書中若登漢孛山絕頂四顧滄溟俯觀南極老人指點月出無等諸山可溢奇胸如太白所云

雲垂大鵬絳波動巨鯨沒者唯此可以當之措吾軀因勢不能耳然男兒落地橫截巨溟足踏此異區目擊此異俗亦世間奇壯事蓋有欲來不得欲止不免者似亦冥數前定何足歎焉又云骨肉隔絕親知悠緬昔時從遊凋喪已多天外孤身幾嘗世故尋常處心固未嘗不怡然順理而忽然念至亦未嘗不悵然以感。 裨官雜記

絕命辭曰投絕國兮作孤魂遺慈母兮隔天淪遺斯世兮隕余身乘雲氣兮歷帝州從屈原兮高道逢長夜冥兮何時朝爛丹衷兮埋草萊堂堂壯志兮中道摧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東閣雜記·己卯錄

其在謫中語子弟曰余平生處心不愧幽獨而今得奇禍汝等毋以我自息也。 己卯錄 「公之堂姪應教大宇收遺稿刊行

仁宗未命復官爵有沖庵集行于世。 己卯錄 (卷8.713:11-714:6)

V

光海君

光海君諱暉 宣祖第二子恭嬪金氏出乙亥生初封光海君萬曆己酉卽位天啓癸亥廢在位十五年放江華甲子遷泰安賊平還江華丙子冬移喬桐丁丑二月移濟州辛巳卒仁祖十九年壽六十七葬楊州赤城洞亥坐原距恭嬪墓一牛鳴。(卷19.553:1-3)

丙子冬廢主自江都移圍籬於喬桐丁丑出城申景嶼具宏申景瑗申景愷洪振道等聯名貽書於京畿水使申景珍使之善處蓋潛害之意也景珍不從

丁丑二月僉載作五月自喬桐又移於濟州有一武人求爲別將以爲立功之地而不得焉蓋景嶼等之餘意也。 丙子錄

光海之移置也隨往宮婢有性悍猾賊者供奉頗不謹光海責之婢號曰爺爺會居至尊之時百司八方遂月進供有何不足而索饜於無恥之流至有沈榮判書雜菜參判之語乎尙方以時節進錦袍毛裘有何不足而大開私獻之路至使商譯市井得通仕路乎後宮之衣資食物亦名有該司之供有何不足而索賂於求官訟獄者使民心大崩乎爺爺不謹奉社稷使國家至此而入此海島之後反責我以不謹供奉無內愧乎爺爺失位固所自取而吾輩何罪因此桎梏之中耶光海低頭無一語只咄咄而已見者莫不忿其言之悖慢謂必有天殃後婢因他事果不良死云。 公私見聞。(卷23.741:20-742:2)

時移置廢主于濟州而嚴飭護行人勿語其所往之處船上四面皆障以帷幔送到泊始告之時武臣李元老爲護行別將水路艱險瀕死者數既泊去帷請下乃告以濟州主愕然大憾曰我何以到此我何以到此殆不能定情濟倅迎候跪進曰公子若於君臨之時斥遠邪佞不使宦官官妾干預朝政則

何以到此乎獨不見不修德舟中皆敵國之語耶主淚歎歎下不能語

○ 光海在濟州李時昉爲牧使申飭州人潔其膳羞以進光海喜其異前日此必前日受恩於余者也老官人曰非也光海曰汝何以知之官人曰爺爺之黜陟臣僚一從後宮毀譽此倖若曾曲選受恩者則必將薄待故主擬掩前日陰秘之跡豈敢致誠如此哉光海後知爲時昉低頭垂淚。〔公私見聞〕

○ 光海格棘海島之後中使於其室中得一紙而進乃婦人書而只訊安否而已 上以內外不嚴罪守者又拿同室任昭容鞠之殿庭而終不知其書之出於誰某申欽謂鞠廳諸宰曰吾輩目見舊主寵姬被刑訊而不能止又從而荷其刑必有後世之議。〔公私見聞〕

○ 辛巳七月初七日丙子錄曰初二日 光海卒于濟州壽六十七訃聞 上輟朝三日進素饘五日特遣禮曹祭議蔡裕後率其郎僚與中使護喪以來令各道監司陪行檢飭祭尊禮曹請葬以王子君一等禮上特命用隆長生殿梓宮易棺改斂遣承旨致祭十月初四日葬于楊州逮事臣僚皆食素四日而止上同

肅宗二十七年辛巳三月二十六日 晝講承旨李世載進曰光海墓在楊州其外孫奉祀者將欲加土而以事力不逮請得役丁訴于禮曹及備局而不爲啓達光海廢置後 仁祖聞其疾病則必賜與藥物及其歿宰臣以治喪不謹至爲陳疏今於墳墓加土時宜有助役之道矣上可之命給役夫。上同 (卷23.742:3-22)

IX

嶽海瀆山川

○ 名山大川東雉嶽山原州南鷄龍山公州竹嶺山丹陽 勿 弗山蔚山主屹山開慶錦城山羅州中木覓山都城內西五冠山長湍牛耳山海州北紺嶽山積城義館嶺淮陽。

西摩尼山江華南漢拏山濟州北白頭山甲山已上追載祀典詳下 (別集 卷4.632:13-15)

○ 癸未禮判閔鎮厚言漢拏山以海外名山獨漏祀典命議大臣領相申玩議名山大川皆載祀典漢拏山獨漏禮曹啓所謂五禮儀未成之前耽羅未順之時故因此漏落者似然追載祀典恐無所妨嶺中樞尹趾完議本州啓本所謂五禮儀纂成時本州乍順乍逆者非考據之言無亦以海外區別不同內服而然耶國典所無今難制行而第本州事體與諸道州郡有異若令本州春秋享祀與諸侯祭封內川之禮則似或無妨 教曰漢拏山以海外名山獨不入於祀典未免欠闕依嶺相議施行。(別集 卷4.633)

諸壇

○ 肅宗丁丑二十三年 上禱雨于風雲雷雨壇教曰昔明太祖憫旱憂勤至於徒步出詣山川壇而自忘

其勞會前郊壇舉動時降輿於壇門至近之處其視徒步之意豈不乖哉於予心實爲未安其令該曹設於稍遠少安子懷

○四十五年 己亥 濟州牧使鄭東後啓言本島素有風雨雷雨壇千有餘年虔奉享祀壬午年李衡祥爲牧使以州縣官分所不敢狀聞輟罷其後風雨乖戾之患每每發作若仍舊復設而依漢擊山儀下送香祝則宜無分所不敢之嫌且可破民人等之惑命議大臣從之。(別集 卷4.634:8-13)

○濟州 橘林書院 萬曆戊寅建 肅宗壬戌賜額 金淨 宋麟壽 鄭蘊 金尙憲 宋時烈 別祠 李約東 李繪 晚悟本牧 (別集 卷4.658)

X

○四十年 上聞湖南賑穀 利迫濟州 喜甚 下 御製詩于海昌尉吳泰周曰 千里南溟利涉難 風高移粟亦間關 報來船泊皆無恙 天意分明濟裏螺 (別集 卷11.818:4-5)

XI

○濟州 有城 本耽羅國 或稱毛羅 新羅時號星州 高麗時改爲郡 又降縣 忠烈王時 元爲牧馬場 尋還隸 改爲濟州牧 太宗壬午 置左右都知管 世宗乙丑 改上副鎮撫 世祖丙戌 置節制使 睿宗乙丑 改牧使 〇耽毛羅 東瀛州 〇十面距京陸路九百三十六里水路九百七十里 〇高內縣 涯月縣 郭支縣 歸德縣 明月縣 新村縣 咸德縣 金寧縣 已上各縣皆爲直村。(別集 卷16.667:18-22).

鎮堡

旌義水山堡 舊大水防護所縣東二十五里 萬戶。

大靜遮歸堡 縣西二十五里舊防護所 萬戶。(別集 卷7 邊州典故 鎮堡, p.708)

荒唐船

○世宗時 七歲女兒來泊濟州 舟中有一琴一樽及資治通鑑 命養之宮中 及長爲王孫副室 僅說

○船泊濟州 船上有七歲女資治通鑑一帙及牙笏而已 女兒自言 中國辛相女姓金 術士言我

不利於父母。到外國甚吉。故載之空船而送之云。上命養之宮中。及長爲王孫江陽君副室。姓貫稱大元。江陽君無嫡子。而金姓生三子。曾孫誠中號坡谷。敬中養中三兄弟登第。其從弟時中。歲仕庶尹。子孫蕃衍。科甲相繼。牙笏傳寶。

至今子孫登科。必執而遊街。 覽述 (p.743:9-15)

庚寅。嘉靖九年。琉球國人十名。漂到濟州。付正朝使吳世翰等。領解奏聞。 上同。攷事撮要 (別集 卷17.743:9-19)

宣祖壬午 十五年 …(中略)… 秋。福建人陳元敬等。東洋人莫生哥。西洋人馬里等。漂到濟州。順付進賀使鄭琢奏聞。

甲申秋。福建人阮喬柱。漂到慶尙道蔚山郡。順付冬至尹仁函奏聞。奉聖旨送還人口候至十數名以上。題請給於賞。

丁亥。天朝人孟世隆等十名。漂到沿海地方。差通事韓潤。押解遼東都司交割。丙申。福建哨倭官林日等四十六名。漂到濟州大靜縣。本國各給衣糧盤纏。差通事朴仁儉。押解遼東。(別集 卷17.744:15-22)

辛亥。福建人林閔臺等三十二名。漂到濟州。給衣糧付千秋使李順慶押解。(別集 卷17:745:8)

乙丑。漢人朱鎮國等十一名。因運糧漂到濟州。押解如例。(同745:20)

甲戌。漢人李如果等。漂到濟州。鄂報國等三十二人。漂到泰安。並押解假島。(同745:24)

丁未。福建烈嶼島人陳得等九十五名。往販日本。漂到大靜。

甲申後兵未到此島。未削髮出海十餘年。聞沿海安寧。歸尋父母妻兒云。押解移咨禮部。持永曆二十一年曆來。(同746:13-15)

琉球國

中宗庚寅。漂到濟州。入荒唐船。

光海壬子。琉球國人馬喜富等八名。漂到濟州。給衣糧順付賀正使趙存性。押解奏聞。仍具咨琉球國知會。

仁祖末年。琉球太子。漂到濟州。爲守官所害。是後遂絕焉。 春官志

太子臨刑詩曰。堯語難明桀服身。臨刑何暇訴蒼旻。三良入穴人誰贖。二子乘舟賊不仁。骨暴沙場纒有草。魂歸故國弔無親。朝天館下滔滔水。長帶餘悲咽萬春。(別集 卷18.783:11-21)

三韓

○又有洲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其人差短小。言語不如韓同。皆髡髮如鮮卑。但衣皮。好養

牛及猪。其衣有上無下。略如裸勢。乘船往來城市。已上并同文廣考。(別集 卷19.799)

新羅

文武王 諱法敏太宗王太子 …(中略)…

壬戌 耽羅國降。(別集 卷19.805)

百濟屬國

州胡國。後漢書云。在馬韓西海島中。未詳其地。詳馬韓下

耽羅國。或稱耽牟羅。亦號毛羅。又號於羅東瀛洲。在南海中。幅員四百餘里。今濟州。

厥初無人物。三神人從地湧出。今嶺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次曰夫乙那。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木函。浮至東海濱。有紅帶紫衣使者隨來。開函有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乃曰我是日本國使也。吾王生三女云。西海中岳。降神子三人。將欲開國。今臣侍三女來。使者乘雲而去。三人分娶。各定都焉。日就富庶。輿地勝覽。高麗史 古記

十五世孫高厚高濬昆弟三人。造舟渡海。泊于耽津。蓋新羅盛時也。時客星見南方。太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也。及厚等至。王嘉之。稱厚曰星主。以其動星象也。令清出袴下。愛如己子。稱曰王子。又號其季曰都內。邑號曰耽羅。以初泊耽津而朝新羅也。各賜寶蓋衣帶而遣之。自此子孫繁盛。敬事新羅。遂以高爲星主。良爲王子。夫爲徒上。後改良爲梁。上同。後屬百濟。文周王二年丙辰。修方物來貢。

東城王二十一年。以耽羅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其主聞之。遣使乞罪。乃止。輿地勝覽
及百濟滅。新羅文武王元年。耽羅國主佐平徒冬晉律。來降。輿地勝覽。時百濟新亡。晉律尚稱百濟
官號。

高麗太祖二十年。遣太子末老來朝。賜星主王子爵。上同。

肅宗十年。改耽羅爲耽羅郡。毅宗時。降爲縣令。上同。

穆宗五年。耽羅山開四孔。赤水湧出。五日而止。水成瓦石。又十年。有山湧于耽羅海中。山之
始出。雲霧晦暝。地震如雷。凡七晝夜始開霽。山高可百餘丈。周四十餘里。煙嵐罩其上。望之
如硫黃色。無草木。人恐懼不敢近。穆宗遣太學博士田拱之往視。拱之躬至山下。圖其形以進。
名曰瑞山。今屬大旌縣。輿地勝覽。未幾王與母后。遭康兆廢弑之變。至元宗避蒙古兵入江都。既
還京。將軍裴仲係盧永禧等。以夜別抄兵。叛于江都。立宗室承化侯溫爲王。大掠留都百官妻
子及公私財貨。浮海南走。據珍島轉入濟州。出兵攻羅全等州陷之。高麗遣金方慶。合蒙古兵。
擊斬僞主溫於珍島。餘黨復入濟州。出沒海洋。寇忠清道。焚孤蘭島戰船。執洪州副使李行儉。
開城戒嚴。十四年。又遣金方慶。會蒙將兀都等討之。賊魁金通精等。奔入山自殺。斬其黨一千
三百七十餘人。

忠烈王三年。爲牧馬場。輿地勝覽。

元世祖置牧場於濟州。放騁馬十萬疋字長。置達魯化赤守之。其土地仍卽高麗歲貢。同文廣考。
忠烈王二十年。

二十年。王朝元。請還耽羅。元丞相完澤等。奏奉帝旨。還隸于我。翌年改爲濟州。輿地勝覽。

二十六年。元皇太后又放廐馬。三十一年。復還于我。上同。

授濟州王子文昌裕星主號。高仁朝等章服。同文廣考。

恭愍王十一年。元以副樞文阿但不花。爲耽羅萬戶。輿地勝覽。

元牧子強暴。累殺國家所遣牧使萬戶以叛。及金庚之討牧子。訴元請置萬戶府。王奏請令本國
自署官。擇牧子所養馬以獻如故事。帝從之。上同。

大明興。詔進戰馬萬疋。王遣使濟州命獻馬。元牧子哈赤等曰。此馬乃世祖皇帝所畜也。豈可
獻之於明國。遂作亂殺官吏。王遣都統使崔瑩擊誅之。復置官吏。同文廣考。

初元順帝見天下大亂。欲保濟州。遣工匠于島中。大營宮室。計未及就。爲明兵所逼。北走開平。
恭愍王影殿之役。招元工匠元世等十一人於濟州。至開城。世言於宰相曰。元皇帝好興土木
以失民心。自知不保四海。乃使吾輩。營宮濟州。亦未及入保。國亡身播。使吾輩失衣食至此。
元以天下之大。勞民而敗。高麗雖大。能不失人民乎。願諸公告于王。上同。

我。太宗二年。星主高鳳禮。王子文忠世等。以星主王子之號。似涉僭擬。請改之。以星主爲左
都知管。王子爲右都知管。輿地勝覽。

鎮山曰漢拏。以雲漢可拏引也。一云頭無岳。以峯峯皆平也。一雲圓山。以穹窿而圓也。其嶺有

大池 人喧則雲霧 咫尺不辨 五月雪猶在 上同

朝天館 由三邑出陸者 皆泊舟于此 上同

南師古言 白頭山脈 東入大海爲日本 南入大海爲耽羅 又世傳其地 直老人星 民多壽考 又直房星 馬畜繁殖 南方者 陰之所統 風土多女 有一夫十妻者 無虎豹熊羆豺狼害人之獸 狐兔則鶻之屬 野鹿多魚族所化 登漢擊巖 望白海 卽琉球界也 西南近浙閩 北接康海南 世稱水路九百里 其實四百餘里云 土產 柑橘柚諸香木 藥材 零陵安息香鍾乳白蠟石決明瑤珠鸚鵡螺牛黃駘帽梁臺之屬 (別集 卷19.820.25- 822)